

二障說備忘

김성구*

一. 緒言

佛陀의 出世本懷는 무엇일까? 法華經 方便品에 말하기를 諸佛世尊 惟以一大事因緣故 出現於世라 하였고, 또 같은 品에 이르시기를 欲令衆生 開佛知見 使得清淨故 出現於世 欲示衆生佛之知見故 出現於世 欲令衆生 悟佛知見故 出現於世 欲令衆生 入佛知見故 出現於世라 하여 衆生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佛知見에 깨달아 들어가게 하고자 한 것이 그 주된 意義이어서 이를 佛陀의 一大事로 看做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佛과 衆生은 무엇이 있어 이렇듯 救援할 분과 救援 받을 者로 나뉘어졌을까? 八十華嚴 第五十一卷 如來出現品에 이르시기를 無一衆生而不具有如來智慧德相 但以妄想執着而不證得 若難妄想 一切智 自然智 無礙智 即得現前이라 하여 衆生이 衆生이게 하는 要因은 妄想 執着을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란 事實을 克明히 밝히셨다.

다시 그렇다면, 이 妄想執着이란 무엇일까? 妄想과 執着인가? 妄想 그대인가? 執着인가? 어찌되었던 이 妄想執着의 正體를 바로 알아 이를 끊는 일이 佛敎를 공부하는 者의 目的이어야 하고, 佛陀의 出世本懷 또한 이 問題를 除하고는 名分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經典의 어디서나 우리가 끊어야 할 迷妄의 世界를 여러 가지 形態로 說示하고 있고, 著名한 祖師들의 遺著에도 이 部分이 相當히 強調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急先務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기 爲함이 아닐까 한다.

마치 患者에게 “어서 병이 나아서 전과 같이 재미나게 살아야지...” 한다면 이럴 때에 급한 것은 病이 낫는 일이지, 재미를 보는 일은 다음의 問題일 것이고, 病이 낫는데는 누가 고쳐 주기를 바랄 것도 아니요 저절로 낫기를 바라서도 안되는 일이기애 이 “어서 나아야지...”하는 말은 진정 “어떤 病을 어떤 方法으로 물리쳐야 하나?” 하는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切急한 일하기에 經論의 到處에서 重重無盡으로 說示하신 老婆心은 感賀할 뿐이지만 微弱한 根機로서 要津을 涉獵하기에는 도리어 亡羊之嘆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實情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理解하기 爲하여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갈피를 잡기 어렵게 만든 結果가 된 것이다.

이에 筆者는 問題의 妄想執着은 煩惱障과 所知障等 二障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二障에 關한 敎說을

* (일운스님, 불교학과)

힘 닿는대로 찾아서 整理해 볼 생각으로 붓을 들었다.

이렇게 妄想執着을 二障이라고 생각하는 理由로서 楞嚴經 第一卷 重請開示科에 阿難이 사퇴기를 世尊我等今者二障所纏皆由不知寂常心性이라 한 것에 根據한다.

여기서 말한 寂常心性은 寂心性和 常心性的 含蕃語로서 前掲 華嚴經에서 말한 如來智慧德相과 別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이 寂常心성을 모르는 者が 纏屬될 곳은 二障이요, 本有佛性을 證得하지 못하는 者が 屬할 곳은 愚痴衆生일 수 밖에 없다는 論理가 成立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二障에 關한 解答 또한 손쉽게 整理하기 어려우니 前掲 楞嚴經外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經典으로서 圓覺經 彌勒章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善男子 一切衆生 由本貪欲 發揮無明 顯出五性差別不等 依二種障而現深淺 云何二障 一者理障碍正知見 二者事障續諸生死니라 하였고, 金剛經 圭峰疏 懸談 教起因緣科에서는 이르기를 爲對除我法二執故 由此二執起煩惱所知二障 由煩惱障障心心不解脫 造業受生 輪迴五道 由所知障障慧慧不解脫 不了自心 不達諸法性相 縱出三界 亦滯二乘이라 하였고, 佛地論에서는 이르기를 根本智 後得智 離煩惱障及所知障이라 하여 名義가 一律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起信論은 한 論文 안에 行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性淨本覺中에는 이르기를 三者 法出離鏡 出煩惱碍智碍 離和合相 淳淨明故라 하였고 更重科疏文에는 이르기를 又染心義者 名爲煩惱碍 能障眞如義故 無明義者 名爲智碍 能障世間自然業智故라 하여 年少者뿐 아니라 初老에 屬하는 筆者 같은 경우도 도무지 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오늘의 우리들뿐 아니라 古人들도 同感인 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默庵最訥의 諸經問答盤錯會要中 十本經論 二障體說의 序論에 이르기를 二障能所經論中 法相大節 諸方講席 未有定論 加之初學 莫之會通 故今引十本聖量 更承理教之力 而細釋其義 以寄通識 冀諸同袍 不厭煩引¹⁾이라 하여 二障說에 對한 揀別이 어렵다는 事實을 吐露했음을 본다.

또 二障說에 關心을 기울인 분으로서 元曉스님을 들 수 있으니, 그는 二障을 풀이함에 있어 一釋名義 二出體相 三辨功能 四攝諸門 五明治斷 六總決擇等 六門으로 나누어 廣範圍하게 講述하여 二障義²⁾라 하였으나 前掲 默庵의 私記와 함께 理解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스스로의 見聞을 整理하는 한 方法으로서 前掲 諸經論疏를 土臺로 하여 名義와 行相을 간추림으로써 本稿의 向方으로 삼는다.

二. 唯識의 二障

法相宗宗典의 하나인 成唯識論 第九卷에는 二障의 名稱과 定義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煩惱障이라 함은 遍計所執에 依해 實我를 執着하는 薩迦耶見으로 上首를 삼고, 百二十八根本煩惱와

1) 朝鮮 英祖·正廟年間(1722~95)에 生存했던 스님으로서 14세에 出家하여 禪과 教을 두루 섭렵하고 今掲 諸經問答盤錯會要(一名諸經會要) 華嚴品目, 內外雜著等の 著述이 있다. 東國大學校發行 韓國佛敎全書 第十卷 10~26쪽 참조.

2) 東國大學校發行 韓國佛敎全書 第一卷 1~789쪽 元曉의 二障義 參照.

그리고 거기에서 等分으로 流出된 모든 隨煩惱를 이른다. 이들은 모두가 有情들의 身心을 擾惱하여 能히 涅槃을 障礙하므로 煩惱障이라 한다.

煩惱障者 謂執遍計所執實我 薩迦耶見 而爲上首 百二十八根本煩惱 及彼等流諸隨煩惱 此皆擾惱有情身心 能障涅槃 名煩惱障³⁾

이는 煩惱障의 名과 義를 풀이한 것인데 먼저 義, 즉 구성요소를 說明하고 後半은 名을 풀이하고 있다. 定義로서 煩惱障의 첫째 構成要素는 잘못된 妄想의 別名인 遍計所執性에 依해서 “이것이 나의 實體로구나!” 하는 執着을 내게 하는 主體에게 붙이는 名稱이니, 그 主體는 薩迦耶見이라 하였다. 薩迦耶는 我라 翻譯하니 我見이라 해야 될 것이나, 我所를 並稱할 때에는 薩迦耶見이라 한다는 通例에 따라 여기서 말한 薩迦耶見은 我와 我所를 並舉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我와 我所를 合하면 我執이 되니, 煩惱障의 主體는 我執이라 할 수 있다.

煩惱障의 둘째 構成要素로서 百二十八根本煩惱를 들고 있다. 그러나 通說에는 根本煩惱로서 貪·瞋·痴·慢·疑·不正見等 六種, 或은 不正見을 身見·邊見, 邪見, 見取見, 戒禁取見으로 나누어 十種이라 했을뿐 百二十八種이란 처음 있는 말이다. 이에 關係 大乘百法明門論(百法論)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음을 본다.

煩惱六者 一貪 二瞋 三痴 四慢 五疑 六不正見⁴⁾

그렇다면 百二十八種根本煩惱는 어떻게 해서 나온 法數인가 相宗綱要 煩惱所知條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所謂 百二十八者 何也 見所斷惑 有其十種 謂貪 瞋(無明) 慢 疑 身見 邊見 邪見 見取見 戒禁取見 各障欲界四諦之理 故有四十障 色界 有三十六(每諦除瞋故) 無色亦爾 合有一百一十二 更加修道十六種 故成一百二十八也 何謂十六種耶 謂 欲界六及 上二界 各五也 貪 瞋 痴 慢 身見 邊見 謂之欲六 上界無瞋故 各有五也⁵⁾

이를 다시 分析하면 見道惑의 根本惑으로서 貪 瞋 痴 等 十使煩惱가 欲界에서는 苦集滅道等 四諦를 障礙하니 四十一요, 色界와 無色界에서는 瞋心이 없으니 各各 三十六으로서 上二界를 합하면 七十二요 三界를 모두 합하면 百十二가 된다.

다음은 修道位에서 끊을 障礙로서 十六種이 있다고 했으니 修道惑의 根本은 貪·瞋·痴·慢·身見·邊見等 六種이니, 이는 欲界에서 끊을 것이요 上二界에는 各各 瞋이 없으니 各各 五가 되어, 上二界分은 十이요 欲界까지 合하면 十六이요, 이를 앞의 見道惑과 合하면 百二十八이 足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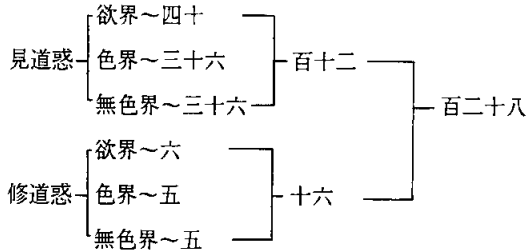
3) 唐의 玄奘이 十大論師(①護法 ②德慧 ③安慧 ④親勝 ⑤難陀 ⑥淨月 ⑦火辨 ⑧勝友 ⑨勝子 ⑩智月)의 唯識三十頌에 關係 著述한 열 가지 學說中 護法の 說을 中心하고 다른 學說은 參酌하여 서기659에 譯出한 十卷의 論書이니, 八識의 行相을 자세히 說明하여 認識의 過程을 明白히 하고, 또 모든 障惑을 끊어 깨달아 들어가는 課程을 五階位로 規定하고 있다. 佛敎大系 佛敎大系完成會代表 原子廣編 第四卷 388쪽 參照.

4) 玄奘이 天親의 瑜伽論本事分中에서 百法の 名數만을 抄譯한 것이니 一卷. 一名 百法論이라고도 함. 一切法을 心法 心所法 色法 不相應行法 無爲法等 五門으로 나누어 敘述하고 있으므로 五位百法明門論이라고도 한다. 唐의 親基가 解釋한 것과 明의 德清이 述義한 것이 流通하고 있다. 新修大藏經62권 853쪽 參照.

5) 西紀一九二一年(民國十年)에 梅光羲가 相宗을 공부하려는 이의 入門을 爲하여 唐疏諸本을 參酌하여 法相宗名等 百四十項으로 나누어 解說을 加하고 있다. 제16쪽 參照.

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써煩惱障의 둘째構成要素로서百二十八種の根本煩惱를 든法數는理解되나常例에見道惑의能斷十六心⁶⁾所斷八八使說⁷⁾과修道惑의八十一品修惑說⁸⁾과相違되는點은別途의論證을要하는것으로미루어야한다.

- 6) 三界의 見道惑을 끊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十六種의 智慧이니, 苦·集·滅·道等 四諦마다를 바르게 아는 것을 忍이라 하고, 알아서 證하는 것을 智라 하니 八心이 된다. 이것이 欲界에서는 苦法智忍 등으로 쓰고 上二界, 즉 色·無色界에서는 苦類智忍 등으로 쓰니 十六心으로 變한다.

이를 圖式으로 表하면 다음과 같다.

欲 界	上二界
苦法忍 苦法智	苦類忍 苦類智
集法忍 集法智	集類忍 集類智
滅法忍 滅法智	滅類忍 滅類智
道法忍 道法智	道類忍 道類智

金剛經疏記會編(刊定記) 第7卷3丈上參照(21)

- 7) 八十八使說: 見道惑을 끊으려는 이는 十六種智慧를 바탕으로하여 三界의 四聖諦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迷惑을 끊어야 하는데 그 根本迷惑은 貪 瞋 痴等 十使요 이 十使가 欲·色·無色界의 四諦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八十八種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欲界의 境遇, 苦諦에는 十使가 다 障礙를 이루니 十이요, 集諦와 滅諦에는 身見 邊見 戒禁取見이 除外되니 各各 七이 되고, 道諦에는 身見 邊見이 除外되니 八이 되고 以上の 四諦를 모두 合하면 三十二가 된다.

色界와 無色界는 無條件 瞋이 없으니, 各各 二十八이요 欲界의 三十二와 合하면 八十八이 된다. 이를 圖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欲界	色界	無色界
苦諦 十	九	九
集諦 七	六	六
滅諦 七	六	六
道諦 八	七	七
計 三十二	二十八	二十八

그런데 集滅諦에서 身見·邊見 戒禁取見을 除하는 理由는 苦諦를 닦을 때 몸은 苦의 根本이어서 괴롭다고 觀하여 깨달았으므로 瞋고 邊見은 몸에 依해 있다 없다 하는 소견이 있었는데 身見이 없어졌으므로 瞋고, 戒禁取見은 集諦가 苦의 原因을 규명 할뿐, 잘못된 方法으로 修行하는 길이 아니므로 瞋고 滅諦는 修行의 地位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瞋으나 道諦는 修行하는 地位 여서 或 잘못된 修行이 있을것 같아서 다시 넣었다.

그리고 上二界에는 無條件 瞋心이 없기 때문에 모두 瞋다 金剛經刊定記同上쪽 參照.

- 8) 八十一品惑: 見道惑을 끊은 이가 끊다 남은 修道惑 즉 貪·痴·慢·瞋等을 끊기 위해 三界를 九地로 나누고 每地마다 다시 九品으로 나누어 細分한 것이니 이를 八十一品修惑이라 함. 金剛經刊定記同上쪽 參照.

煩惱障의 셋째 構成要素로서 “거기에서 等分으로 流出된 모든 隨煩惱”를 들었으니, 隨煩惱란 根本煩惱의 一分 또는 두세 가지가 합쳐짐에 따라 생기는 附隨的인 迷惑을 말한다.

그러나 前掲 成唯識論에는 及彼等流 諸隨煩惱라고만 하고 그 頭數에 關하여는 言及이 없으나 前掲 相宗綱要에는 다음과 같이 그 頭數를 二十種이라고 밝히고 있다.

等流隨惑 卽二十種⁹⁾

그렇다면 唯識에서 말하는 二十隨煩惱 전부가 여기에 該當되니, 그 二十種隨煩惱란 前掲 百法論에 다음과 같이 紹介하고 있다.

隨煩惱二十 忿 恨 惱 覆 誑 詭 橋 害 嫉 慳 無 慚 無 愧 不 信 懈 怠 放 逸 昏 沉 掉 舉 失 念 不 正 知 散 亂¹⁰⁾이다. 그렇다면 이들 二十種隨煩惱는 모두가 十種根本煩惱에서 適宜한 分으로 流出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前掲 相宗綱要에서는 等流의 概念을 二十隨惑에만 그치지 않고 그밖에 이와 相應하는 心·心所法까지도 等流惑의 範籌에다 넣어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等流隨惑 卽二十種 此唯自性 若據眷屬 餘心心所 及五蘊亦是也¹¹⁾

이것으로 보건대 이 二十種의 隨惑은 自性, 즉 本體만을 추린 것이고, 그 眷屬까지 推窮해 가면 이 本惑과 隨惑에 同時에 相應하는 心·心所와 五蘊이 모두 여기에 該當한다는 것이니, 그 範圍가 넓음을 알겠다.

다음은 成唯識論에서 名을 풀이하되 此皆擾惱有情身心이라 하여, 이 煩惱障은 有情의 身心을 擾惱하는 것으로 特性을 삼음을 밝혔고, 다음 能障涅槃이라 하여, 煩惱障이 窮極의으로 有情들로 하여금 涅槃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煩惱障이라 한다 하였고 前掲 相宗綱要 같은 條에는 煩惱卽障持業釋也 하여 煩惱 그 自體가 涅槃을 障礙하는 기능을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다음은 成唯識論에서 所知障을 풀이하는데 亦是 構成要素와 機能에 依한 名稱의 順으로 敍述하고 있으니 그 構成要素는 다음과 같다.

所知障者 謂執遍計所執實法 薩迦耶見

而爲上首 見·疑·無明·愛·恚·慢等¹²⁾

所知障이란 遍計所執으로 實法이라고 執着하는 薩迦耶見을 上首로 하여 見·疑·無明·愛·恚·慢等까지를 이른다.

그렇다면 所知障의 構成要素도 얼핏 보기에는 煩惱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但 다르다면 煩惱障은 實我라는 執着이 上首가 되고 所知障은 實法이라는 執着이 上首가 된 것뿐이다. 그러기에 相宗綱要에서는 此頭數 亦與煩惱障同¹³⁾이라 하여 같은 薩迦耶見이 見分으로 現行한 形態가 別差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實我·實法의 差別은 없지 않으니 이 點에 對하여 義用이 다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9) 相宗綱要 16下參照.

10) 百法論 新修藏經 六十二卷 855下參照.

11) 相宗綱要 十六丈下參照.

12) 佛教大系 第4卷 389參照.

13) 相宗綱要 十六丈下參照.

執我執法薩迦耶見 體無有異 同一種生 現行見分 亦復同一 但以義用有別 故分爲二¹⁴⁾

薩迦耶見은 하나인데 그 機能에 있어 다를 뿐이니, 義用에 差別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뉜다.

여기서 말한 하나라 함은 薩迦耶見이요 둘이라 함은 煩惱障과 所知障이다. 이에 대하여 唐 窺基의 唯識述記는 如-眼識 緣青黃兩境 即是兩行相生也라 하여 두 가지 義用的 定義를 簡潔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면 所知障을 이루는 義用的 主體는 어떠한 惑들인가? 薩迦耶見을 上首로 하여 見·疑·無明·愛·恚·慢等이라 하였으니, 따지고 보면 煩惱障을 이루는 二十六種의 根隨煩惱임은 같으나 煩惱障은 貪等 煩惱가 有情을 擾惱하여 大涅槃을 障礙하고 所知障은 有情을 覆蓋하여 大菩提를 보지 못하도록 障礙하는 것이 다를뿐이다. 그러므로 所知障의 名稱에 關하여 前揭 成唯論에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覆所知境 無顛倒性 能障菩提 名所知障¹⁵⁾

알아야 할 境界의 顛倒없는 性은 覆蓋하여 能히 菩提를 障礙하므로 所知障이라 한다.

여기서 말한 顛倒없는 性이란 바로 大菩提이다. 이 大菩提를 障礙하는 所知障은 바탕이 너무 微細하기 때문에 所知의 境을 障하는 그 무엇에다 所知障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大菩提를 障礙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의 細惑이 들어서 智慧를 막고 있어 大菩提가 생기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니 그래서 舊譯에서는 智障이라 번역했다.

이처럼 智를 障礙하는 主體가 너무 微細한 데 反하여 막힘을 당한 大菩提는 너무나 增勝하기 때문에 막힘을 당한 편을 들어서 所知障이라 한다.

原則적으로 보면 煩惱障의 경우 煩惱가 障하여 涅槃을 얻지 못하게 한다 한 것과 같이 持業釋으로 보아서 細惑障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不可能하므로 所知를 障礙하는 惑이라 定義하여 依土釋으로 所知障이라 했다.

以上으로써 煩惱障과 所知障은 共히 根隨煩惱로 體를 삼았으나 그 中 거칠은 分別惑은 涅槃을 障礙하여 有情으로 하여금 生死에 流轉케 하는 煩惱障이 되고 俱生細惑은 大菩提를 障礙하여 有情으로 하여금 大覺의 解脫을 얻지 못하게 하는 所知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二障은 어찌하여야 끊을 수 있는가? 前揭 成唯識論 第九卷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如是二障 分別起者 見所斷攝 任運起者 修所斷攝 …… 永斷二種 唯聖道能¹⁶⁾

이들 二障에서 分別로 일어난 것은 見道位에서 끊을 것에 屬하고 任運俱生하는 것은 修道位에서 끊을 것에 屬하고 두 가지를 영원히 끊은 것은 오직 聖位라야 可能하다.

다시 말하면 分別 僞惑으로 일어나는 煩惱障은 見道位에서 끊고 俱生細惑으로 일어나는 所知障은 修道位에서 끊고 두 가지를 永遠히 끊는 것은 聖位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分別惑과 俱生惑의 處와 細가 依支하는 識은 어떤가를 알 필요가 있으니, 前揭 唯識述記에

14) 全上(28).

15) 佛敎大系第四卷 390쪽 參照.

16) 佛敎大系第四卷 398쪽 參照.

서는 俱生 分別 既通六識이라 하여 모두가 六識을 뿌리로 하여 나타나는 現狀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第六意識中 對境의 事物에 對하여 분주하게 計度을 일으키는 分別事識은 分別이요, 몸과 함께 태어나서 끊임없이 密用하는 쪽을 俱生이라 한다.

그러므로 드러난 分別에 의해 생긴 我執의 煩惱障은 見道位에서 道의 實體를 보자마자 한꺼번에 끊어지고 俱生惑에 의해 생긴 法執의 所知障은 修道位에서 차츰차츰 끊다가 金剛位에 이르러서야 모두 끊어지니, 小乘은 煩惱障만은 끊고 大乘은 所知障까지 끊는다. 이에 關하여 相宗綱要에는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分別之障先斷 於見道時 一時頓斷 俱生之障後斷 修道位中 分分漸斷 至金剛心 方能斷盡 二乘唯斷 煩惱 大乘即雙斷也

結局, 煩惱障은 麤하고 所知障은 細하여 煩惱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所知障이 併存하고 있으나 所知障은 반드시 煩惱障과 併存할 必要가 없다는 結論이 된다.

위의 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煩惱障→我執→分別→麤→見道斷

所知障→法執→俱生→細→修道斷

三. 元曉의 二障義

元曉聖師께서 釋名義 出體相 辨功能 攝諸門 明治斷 摠決擇等 六門으로 나누어 二障義를 著述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이제 다시 二障義中에서 必要한 區分을 뽑아 살펴본다.

첫째, 釋名義에서 二障의 名稱을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言二障者 一煩惱障 亦名惑障 二所知障 亦名智障 或有異門 名煩惱障 及與智障¹⁷⁾

그는 이어 二障의 名義를 풀이하되 構成體와 機能의 事例를 들었는데 大體로 前揭 成唯識說의 說과 같다.

但 여기서 새로운 것은 煩惱障과 智障의 名稱을 들되 或有異門이란 前提下에 두고 있어 起信論 本覺文에서의 것과 같이 大乘의 二障이 差를 提示했다.

이 二障의 名稱은 어찌하여 唯識學의 祖宗인 成唯識論에는 보이지 않고 起信論에 이르러 보이는 것일까? 또 같은 起信論인데 本覺文에서의 二障과 更重科揀文에서의 二障을 풀이함이 다른 所以는 무엇일까?

아마도 大乘佛敎의 出現으로 眞如緣起說을 定立하는 課程에서 自然스럽게 생긴 行相이 아닐까 臆測해본다.

二障義에서는 二障의 名義를 풀이하는데 起信論에서 말하고 있는 六種染心은 煩惱障의 바탕이요 根本無明은 智障을 이룬다는 趣旨에서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17) 韓國佛敎全書 第一卷 1-789쪽 參照.

或名煩惱障者 六種染心 動念取相 違平等性 離相無動 由乖寂靜 名煩惱障 根本無明 正迷諸法 無所得性 能障俗智 無所不得 由不了義 故名智障¹⁸⁾

六種染心이란 起信論에서 根本業不相應染 能見心不相應染所 現色不相應染 分別智相應染 不斷相應染 執相應染이라 하여 이른바 三細四麤를 일으키는 染心으로 풀이하였다.

六染은 비록 不相應染과 相應染의 表裏關係에 있으나 모두 三細四麤의 要因이 된다는 점에서 內面的인 部類라 할 것이다. 더구나 根本無明은 由不了義, 즉 不了一法界義로 因하여 不覺에 생긴 것이니 六染보다 더 微細한 行相이다.

그래서 二障義 第二 出體相門에서는 顯了門과 隱密門으로 나누어 煩惱障·所知障은 顯了門에 屬하고 煩惱障·智障은 隱密門에 屬한다고 하였다.

二 依隱密門出二障體者 六種染心是煩惱障體 根本無明是智障體¹⁹⁾

이 隱密門의 二障와 顯了門의 二障이 크게 다른 점은 二障은 意·意識으로 依支處를 삼는데 二障은 通八識으로 依支處를 삼는 것이다. 따라서 相關的關係로서 煩惱障에 二障의 機能이 다 들어있고 智障은 二障의 領域을 훨씬 超出하여 極히 微細하다고 하였다.

此中 初二在於六識 第三一染在第七識 後之三染在第八識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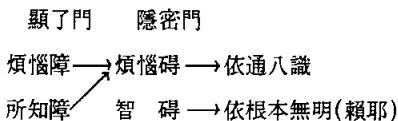
이로써 보건대 三種不相應染은 第八識에 屬하고 分別智相應染은 第七識 不斷과 執 두 相應染은 六識에 屬한다 하였으니 前七識이 第八識을 뿌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分別事識(意·意識)을 所依로 하는 二障도 八識을 依支한다 하겠지만 여기서와 같이 明確히 分齊를 밝혀 煩惱障의 바탕이 되는 六染 모두를 八識에 나눈 것으로 보아 煩惱障에 顯了門의 二障이 包攝된다는 논리를 立證하였다. 그래서 前揭文과 바로 뒤에 此煩惱障六染之中 已攝前文二障皆盡 이라고 斷定하고 있다.

그러면 智障의 依支識은 무엇인가? 亦是 第八阿賴耶識이라 했다. 그 理由로서 이 無始無明은 異熟識과 더불어 相應하지는 않으나 그에게 根本이 되어주면서 여의지 않기 때문에 이 阿賴耶識에 依해서만 그 相을 說明할 수 있다. 그러므로 阿賴耶識의 範壽에 攝屬된다는 것이다.

如是無明 雖非與異熟識相應 而爲作本 和合不離 故依此識 方說其相²¹⁾

따라서 이는 마치 起信論에서 以依阿賴耶識 說有無明不覺而起故라한 것과 같다고 그 論理의 過程을 引證하였다. 다시 말해 無明에 依해 생긴 阿賴耶識에 依해 그 바탕인 無明을 說明할 수 있으니, 이는 씩을 보고 뿌리를 類推하듯 無明은 推測의 對象이며 아울러 이 無明을 바탕으로 한 智障의 依支識은 阿賴耶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二障說은 唯識家의 說이요 二障說은 法性家의 說임을 알 수 있다.



18) 前揭書 二障義 第一卷 1-790쪽 參照.

19) 前揭書 二障義 第一卷 1-795쪽 上段參照.

20) 前揭書 같은쪽.

21) 前揭書 같은쪽.

四.楞嚴의 二障

楞嚴經 第一卷 二十三丈下 阿難의 重請開示科에는 二障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世尊我等今者 二障所纏 良由不知寂常心性 唯願如來哀憫窮露 發妙明心 開 我道眼…
이에 關해 戒環疏는 같은 文의 疏에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二障 卽煩惱所知也 所知 碍正知見 煩惱 續諸生死……

이는 通說, 즉 唯識家에서 煩惱障은 涅槃을 障하여 有情들로 하여금 生死에 流轉케 하고 所知障은 菩提를 障하여 有情들로 하여금 大覺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한 것(相宗綱要十七丈下)과 脉絡을 같이 하나, 二障의 名稱만 같고 그 풀이는 뜻으로 가까운 것이 特色이요, 圓覺經에서 理障碍正知見 事障續諸生死라 한 것과 比較하면 名稱은 다르나 풀이는 完全히 같다.

이에 對해 幻解(刪補記)에서는 戒環의 解釋에 다음과 같이 異義를 提起했다.

然則 今經中 明離二障 斷二執 證二空故 引配二障義則 若合符節 與圓覺二障義 用誰似同 體則不同 引彼解此 恐有違戾²²⁾

普幻의 主張에 따르면 本經의 二障說은 二執을 끊고 二空을 證得하는 것이 主된 目的이라 前提하고 元曉의 二障義에서 顯了門의 二障과 隱密門의 二碍와 圓覺의 二障說을 概述한 뒤에 結論으로서 本經의 二障은 顯了門의 二障說에다 맞추면 若合符節이지만 圓覺의 二障에다 맞추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 理由는 顯了門의 二障에서 煩惱障은 人執을 우두머리로 하여 根·隨煩惱等이 有情들을 遍惱해서 寂靜을 여의게하고 所知障은 法執을 우두머리로 하여 法·愛·慢·無明等이 智性を 遮止해서 現觀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였는데 圓覺의 二障說은 隱密門의 二碍說과 같은 行相으로서 六染中 一分不覺義와 根本無明은 理障을 이루고 六染中 一分相生義는 事障을 이루니, 이 경우 理·事障 모두가 過患이 되는 쪽으로만 붙인 이름일뿐 障礙하는 對象이 明示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本經의 二障說은 二障義를 끌어다가 풀이했으면 꼭 맞겠지만 圓覺經에서 말한 碍正知見과 續諸生死를 引用해서 풀이한 것은 無理라고 했다.

楞嚴蛇足 重請開示科는 이 部分에 關하여 圓覺에서 말한 二障은 體는 起信과 같고 義는 唯識과 같다고 斷定하고 나머지는 幻解로 미루고 있다.

圓覺則 體同起信 義同唯識 可辨也 具如幻解²³⁾

여기서 圓覺의 二障이 體는 起信과 같다 함은 圓覺의 理障·事障과 起信의 智碍·煩惱碍가 共히 根本無明과 六染心으로 바탕을 삼기 때문이요, 義는 唯識과 같다 함은 圓覺의 二障이 가지고 있는

22) 幻解, 原名 首楞嚴經環解刪補記이니 二卷이다. 高麗 高宗 때 驢山縣 歸老庵에 있던 閑庵普幻이 1278년 지은 것. 戒環疏에 잘못된 解釋을 바로잡고, 또 未盡한 解釋을 補完하였음, 내용 刪補와 通妨으로 區分됨.

前揭 東國大學教에서 印行한 韓國佛教全書 第六卷에 收錄되었으며 本件 引用文은 同書 六一四二〇쪽 下段에 收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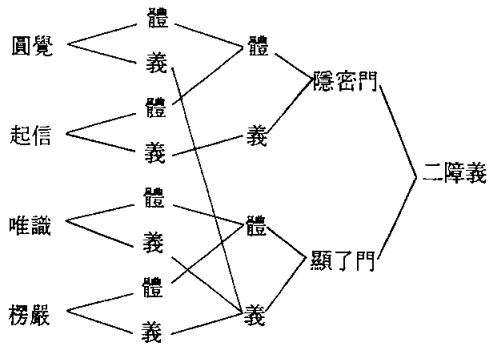
23) 楞嚴經私記一卷. 朝鮮 英祖·正祖 때 仁岳義沼스님이 지었다고 類推되는 私記이나 筆寫로 傳하던 것을 一九〇年 筆者가 看經에 必要한 行相을 添付하고 顯著한 誤·落字를 補完하여 懸吐해서 프린트版으로 내면서 楞嚴蛇足이라 題했다. 本件 引用文은 同冊 第60쪽 參照.

機能은 唯識과 같다는 것이니 圓覺에서 理障은 碍正知見하고 事障은 續諸生死라 한 것과 唯識에서 煩惱障은 能障涅槃하고 所知障은 能障菩提라 한 것이 같은 脈絡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次前項에 引用한 가운데 用雖似나 體則不同이라 한 것은 圓覺의 碍正知見과 續諸生死가 楞嚴의 良由不知寂常心性 唯願如來哀愍窮露라 한 內容과 같아서 唯識家의 行相을 援用했으나 楞嚴二障의 바탕은 單純히 人·法二執을 우두머리로 하는 唯識家의 說에 屬하는데 反해 圓覺의 二障은 無明과 六染으로 바탕을 삼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幻解에서는 二障義(顯了門)를 引用했다라면 若合符節이지만 用만 같고 體는 다른 圓覺의 二障說을 引用하여 楞嚴의 二障說을 풀이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이에 四本經과 二障義에서의 體와 用의 聯關性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整理해 본다.



五. 起信論의 二礙

起信論 本覺科에는 다음과 같이 二礙를 紹介하고 있다.

三者法出離鏡 出煩惱礙 智礙 離和合相 淳淨明故²⁴⁾

또 二礙의 體와 義를 풀이한 것으로서 更重料揀科에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又染心義者 名爲煩惱碍 能障眞如根本智故 無明義者 名爲智碍 能障世間自然業智故²⁵⁾

이 二障說은 二障義에 準하면 隱密門에 屬한다. 따라서 本論 本覺科의 賢首疏에서 煩惱碍의 體를 麤細染心이라 했고 智碍의 體는 所依無明이라 했고 更重料揀科의 本文에서 染心은 煩惱碍요 無明은 智碍라 한 것과 脈을 같이 한다.

二碍의 義에 關하여 煩惱碍는 眞如根本智를 障礙하고 智碍는 世間自然業智를 障礙한다 하였는데 常例에 準하여 생각하면 煩惱碍는 麤하니 世間自然業智를 障礙야 되겠고 智碍는 細하니 眞如根本智를 障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解釋으로서 賢首大師는 같은 疏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24) 大乘起信論疏記會編(一名筆削記) 第二卷 八十七丈上(寶蓮閣合本版 376쪽~378쪽).

25) 同上 第三卷 三十四丈上~下 全 469쪽~470쪽).

染心喧動 違此寂靜 故名染心 爲煩惱障 以煩惱動故 … 以無明昏迷 無所分別 違此智用 名爲智障 從所障得名…²⁶⁾

이것으로 본다면 亦是 煩惱障는 麤하고 智障는 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첫째 바탕이 되는 染心과 無明은 末과 本의 關係에 있다. 둘째, 煩惱障는 寂靜慧를 喧動하니 顯하고 智障는 智用을 어긋나서 가리워진 대상에다 붙인 이름이니 細密하다. 셋째, 煩惱障가 障하는 眞如根本智는 如理智라고 보았으니 麤하고 智障가 障하는 世間自然業智는 如量智 後得智라 하였으니, 根本智보다는 細하다. 그러므로 잘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根本智와 自然業智는 共히 所障體를 말한 것이나 煩惱障는 染心이 主動이 되어 能見 能現 妄取境界의 作用을 일으킴으로써 眞如의 平等한 理를 障礙하니 煩擾하는 機能에다 붙인 持業釋이요, 智障는 無明이 主動이 되어 虛妄하게 平等한 法과 違背되게 함으로써 世間の 一切境界에 隨順하는 後得智를 障礙하니 能障으로 보면 不覺障 또는 無明障이라 한 것이나 所障智를 들어 依主釋으로 命名했다는 事實을 起信論에서 말하려는 것이다.

此義云何 以依染心 能見能現 妄取境界 違平等性故 以一切法常靜 無有起相 無明不覺妄與法違故 不能得隨順世間一切境界種種知故²⁷⁾

以上으로 이 二障는 無明과 六染을 바탕으로 한 心性 위의 細惑이어서 常例에 말하는 二障의 概念과는 다른 것이 特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元曉의 海東疏에서는 이를 隱密門의 二障이라고 定義했다.

…顯了門中 名爲二障 隱密門內 名爲二障 此義具如二障章說 今此門中 說隱密門…²⁸⁾

海東疏에서는 이 引用文에 言及한 바와 같이 二障義에서 顯了·隱密 두 門으로 나누어 이야기했음을 前提하고, 여기서 말한 二障는 隱密이라 斷定함으로써 心性 위에 나타나는 大乘의 細惑임을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自然業智를 後得智로 본 것은 賢首와 같다고 하겠으니 위 引用文 뒤에 “世間業智者 是後得智…”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喧動하는 六染心이 寂靜한 根本智를 障하고 昏迷한 無明이 分別하는 機能이 없어 世間萬事에 隨順하면서 成佛度生하는 差別된 後得智를 障礙한다는 結論이 된다.

그러나 이는 增勝한 편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六染은 理智를 障하고 無明은 量智를 障한다 하여 別障의 論理로 成立시켰거니와 原則的인 면에서 보면 無明과 六染이 共히 理·量二智를 通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海東疏는 別記를 붙여 別障이어야 할 理由를 풀이하기도 하였다.

然以相當 無明應障理智 染心障於事智 何不爾者 未必爾故 未必之意 如論自說²⁹⁾

여기서 通障으로 보지 않고 別障으로만 본 理由를 論 自體에서 풀이하고 있다 하였으나 前項에 紹介한 引用文을 보건데 無明과 六染의 關係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당에서 一往之談으로 나온 것이므로

26) 筆削記疏 第三卷 三十四丈上~下.

27) 筆削記本文 第三卷 三十五丈上~下.

28) 海東疏 (海印講院版) 第四卷 七丈下

29) 別記 海東疏를 自釋한 것으로서 海東疏에 會編되었음. 本引用文은 前揭海東疏 八丈上參照.

總體的인 解說이 必要할뿐. 具體的인 說明이 必要한 대목이 아닌란 뜻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未必爾”라 했으리라 본다.

六. 般若의 二障

緒言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般若經 懸談 辨教因緣中에는 本經이 說해진 目的이 二執을 破하고 二空을 證케 하기 爲한 것이라 前提하고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爲對除我法二執故 由此二執 起煩惱所知二障 由煩惱障障心 心不解脫 造業受生 輪迴五道 由所知障障慧 慧不解脫 不了自心 不達諸法性相 縱出三界 亦滯二乘 不得成佛 故名障也³⁰⁾

이는 圓覺經이나 唯識論처럼 經論의 說은 아니지만 疏主 圭峰禪師는 華嚴宗의 宗主로서 禪과 教에 博通하신 분이므로 經論과 같은 班列로 看做하고 다음 몇가지 項目을 論해본다.

먼저 例文의 體와 義를 살펴보면 金剛經疏論會編에는 아래와 같이 풀이하고 있다.

煩惱 即依根隨等 此依我執而起… 所知 即根本無明也³¹⁾

이것으로 보건대 煩惱障의 體는 唯識의 境遇와 같이 根隨煩惱等의 我執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所知障은 根本無明으로 바탕을 삼으니 大乘의 法執에 該當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同記는 위 引用文 바로 뒤에 起信論의 智障과 같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찌 같은 經의 二障이 大·小乘의 行相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이는 위의 根隨煩惱가 名稱은 唯識과 같으나 必是 大乘의 行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所智障이 起信의 智障과 같듯이 煩惱障 또한 六染中 一分相生義로 바탕을 이루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二障의 義로서 煩惱障은 障心해야 心不解脫케 하고 所知障은 障慧해야 慧不解脫케 한다 하였다. 煩惱障의 경우 障障을 받는 心은 本覺心이니 이 本覺心을 障障받음으로써 第二次的으로 業을 짓고 生死에 輪轉하게 된다.

所知障의 경우 障障을 받는 慧는 般若心經에서 五蘊이 空함을 照見하는 大乘의 深慧라 하고, 이 深慧가 障障을 받음으로써 自心을 了達치 못하고 諸法의 性相을 了達치 못한다 했는데 同記에서는 慧를 얻어 本覺心을 了達하면 根本智를 이루고 諸法의 性相을 了達하면 後得智를 이룬다 하여 事實上 根後二智가 모두 所知障에 依해 覆蔽된다고 하였다.

이에 關한 料揀은 古人들도 어지럽게 생각했던 바이어서 仁岳의 金剛經私記에는 二障의 體와 義를 空宗의 立場에서 性相二宗에 견주면서 同異의 差異를 밝히고 있다.

疏由二執起二障者는 空性相三宗이 俱有此言이나 其義는 異하니 此空宗의 障體와 障處(義)가 對性宗 對相宗에 各有異同이라.³²⁾

30) 般若經疏論 唐의 圭峰이 世親의 斷惑思想에 準하여 二十七段으로 나누어 疑惑을 끊는 쪽으로 풀이한 것이다. 本引用文은 그 前に 붙인 懸談四科中 第一에 該當하니 板本 上卷 四丈上 參照.

31) 金剛經疏論會編(刊定記)은 唐의 圭峰이 지은 疏와 宋의 長水子璣이 지은 記를 康熙甲辰, 即 朝鮮顯宗五年(서기 1664)에 柏菴 性聰스님이 十卷으로 會編했다. 本件引用文은 그 第二卷 十三丈上~下 參照.

32) 註(23)과 같이 仁岳義沼스님이 지었다고 類推되는 金剛經私記이니 亦是 筆者가 프린트版으로 낸 것이다. 其中 空相二宗은 空性相三宗이라야 될 것 같아 고쳐서 紹介했고, 아울러 本引用文은 그 프린트版 25쪽을 參照했다.

二障을 말미암아 二障을 일으킨다는 말이 空性相三宗에 두루 있는데 그 理論의 展開가 서로 달라서 같지 않다고 前提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 있다.

먼저 體에 있어 空宗과 性宗을 比較하면 性宗은 九相中의 一分相續(生)義로써 煩惱障의 바탕을 삼고 根本無明과 九相中의 一分不覺義로써 所知障을 삼는데 空宗은 根本無明과 三細二塵中의 一分不覺義로 所知障의 바탕을 삼고 執取·計名을 습한 一塵만으로 煩惱障의 바탕을 삼으니 二障이 모두 다르다고 보았다.

다음 空宗과 相宗을 比較하면 煩惱障의 바탕은 같으니 空·相 二宗이 모두가 執計로 煩惱障의 바탕을 삼기 때문이요, 所知障의 바탕은 다르니 相宗은 五意만으로 所知障의 바탕을 삼는데 空宗은 根本無明과 五意를 통틀어 바탕을 삼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 義 즉 障處에 있어 空宗과 性宗을 比較하면 亦是 同과 異가 間錯하니 圓覺經의 경우 이 所知障이 根後二智를 障한다 한 것은 二宗이 같고 圓覺에서 煩惱障이 續諸生死 한다 하였는데 今經(空宗)은 障心이라 하였으니 續諸生死는 所障體가 없고 障心에는 所障體, 즉 心이 있어 有와 無로 다르다.

起信論의 경우, 所知障이 後得智만을 障한다 했는데 今經은 根·後二智를 모두 障한다 했으니 전혀 다르고, 煩惱障에 있어 所障의 바탕이 있음은 같고 起信은 智를 障하는데 今經은 心을 障한다 한 것은 다르다.

다음 義에 있어 空宗과 相宗을 比較하면, 위의 圓覺과의 關係와 같이 所知障은 二宗이 共히 根後二智를 障함으로 같고 煩惱障은 다르니 圓覺은 續諸生死 하여 所障體가 없고 今經은 障心이라 하여 所障體가 있어 다르다.

以上을 다시 도표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體	義(障處)
空:性 — 煩惱障…(異) 所知障…(異)	空:性 — 圓覺 — 所知障…(同) 煩惱障…(異)
空:相 — 煩惱障…(同) 所知障…(異)	起信 — 所知障…(異) 煩惱障…(同) (異)
	空:相 — 所知障…(同) 煩惱障…(異)

以上에서 보건대 本經의 二障에 있어 煩惱障은 相續·執計 二塵로 바탕을 삼아 心을 障하여 心을 解脫치 못하게 하고 所知障은 根本無明과 三細二塵中 一分不覺義로 바탕을 삼아 根·後二智를 모두 障礙한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七. 圓覺의 二障說

圓覺經은 文殊等 十二菩薩이 차례로 나와서 한 가지씩의 主題를 놓고 質問하는데 第五章에 이르러

彌勒은 前章에서 “是故我說一切菩薩及末世衆生 先斷無始輪迴根本”이라 한 것에 의하여 첫째 云何當斷輪迴根本이며 둘째 於諸輪迴有幾種性이며 셋째 修佛菩提 幾等差別이며 넷째 迴入塵勞當設幾種教化 方便度諸衆生이니고 하고 묻는다.

이 네 가지 물음 중 셋째 修佛菩提幾等差別이니고 한 물음에 대하여 貪慾을 因으로 삼아 無明과 五性の 差別이 생기고 二障을 依로 삼아 深淺이 생긴다고 다음과 같이 敎示하신다.

善男子 一切衆生 由本貪慾 發揮無明 顯出五性差別 依二種障 而現深淺³³⁾

本有한 圓覺의 性은 法界의 量과 같이 밝건만 無明 때문에 그런 줄 모르게 한다. 이 때 無明 自體에 是 差別이 없지만 이를 遠離하려는 積習如何에 따라 五性の 差別이 생기거나 또는 貪慾때문에 그 薰習에 따라 五性の 差別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邪師邪教에 依해 人法二執에 모두 굳게 執着되면 深이요, 二乘敎를 만나 我空을 얻으면 若干 淺이요 佛·菩薩의 敎를 만나 法執까지를 除하면 極히 淺하니 二執이 應分의 理智를 障하기 때문에 그 障의 機能에 따라 二障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二障의 體와 義는 어떠한가? 위의 引用文에 鱗次해서 다음과 같이 紹介하고 있다.

云何二障 一者理障 礙正知見 二者事障 續諸生死.³⁴⁾

여기서 말한 二障의 名과 義가 다른 經論과 顯著하게 다른 것이 特色이다. 그래서 本顯項 引用文直前의 所依二障科抄에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然此二障 有體有義 義同唯識煩惱所知 謂事是煩惱 煩惱即障 又能續生死故 理是所知 所知非障 是障 障於所知理故 體即起信根本無明及六染心 染心各一分義³⁵⁾

이에 準하건대 本經의 二障이 障碍하는 機能(義)으로서는 唯識의 경우와 같이 煩惱障(事障)은 煩惱 自體가 障碍하여 生死를 相續케 하니 持業釋이요 所知障(理障)은 所知自體가 障이 아니라 所知의 理를 障碍하니 依主釋이어서 唯識의 論理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二障의 바탕인 體는 起信의 境遇와 같이 根本無明과 六染中 一分 不覺義로 所知障(理障)을 삼고 六染中 一分相生義로 煩惱障(事障)을 삼는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 二障이 障하는 對象은 무엇인가? 위 引用文에서 理障은 碍正知見이라 하였으니 理와 正知見이 모두 所障의 體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그렇다면 왜 正知見을 理와 同格으로 보았을까? 理障의 鈔에 此宗以知見 爲理故 故經輿論 每拂病窮法 皆歸覺心 不以空寂虛無(空宗) 便爲眞極 이라 하여 正知見이 바로 覺心의 理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華嚴에서 無一衆生 而不具有如來智慧德相 但以妄想執着而不證得이라 하여 根本無明과 六染中 一分不覺義가 障하는 對象을 智慧라 하여 單純한 空이나 生死愚痴와 相對되는 菩提가 아니라 根本無明以前의 本覺理를 障碍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煩惱障(事障)의 所障體 亦是 克明하게 表現하지 않고 그저 續諸生死라 한 점에 대하여 普幻解

33) 圓覺經疏鈔 第五卷 二十丈下一二十~丈上 又寶蓮閣發行 影印本 880쪽~881쪽 參照.

34) 圓覺經 全上二十一丈下~二十三丈上 參照.

35) 圓覺經鈔 唐의 圭峰宗密이 大疏와 大鈔에서 略出하여 疏鈔를 낸 것, 現行 講院敎材로 쓰고 있음. 本引用文은 疏本五卷 二十一丈下二行參照.

에서는 다음과 같이 斷定하고 있다.

但約過患 以爲障義 無所障法³⁶⁾

即 煩惱障이 生死를 持續케 하는 過患만 提示되었을 뿐, 具體적으로 二執이 二空을 障礙한다는 경우와 같이 所障法이 없다는 것이니, 이는 元曉의 二種二障中 隱密門에 屬하는 것으로서 大乘, 特히 性宗說의 典型的인 事例이다. 그래서 普幻解는 이 引用文에 이어 今經中 明離二障 斷二執 證二空故引配二障章義(顯了門) 則若合等節 圓覺則用(義) 雖似體則不同 引彼釋此 恐有違戾라 하였다.

그러면 事障이 續諸生死하는 行相은 어떠한가? 圭峰疏에서는 六種染心也니 三細乃至起業受報 是續生死義故라³⁷⁾ 하여 三細六塵 모두가 合作이라고 본 것이다. 三細六塵는 起信에서 九相이라 하였는데 生起하는 順에 따르면 細로부터 麤에 이르면서 相이라 부르는데 여기서는 伏斷하는 順에 따르기 때문에 麤로부터 細에 이르면서 染이라 부른다.

그러나 染은 惑과 同一한 概念이므로 事障의 主體가 六染이라고 했으나 實은 三細四塵만을 體로 보고 第五塵는 業이요 第六塵는 苦로서 結局 續諸生死라는 過患을 낳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伏斷에서는 麤한 第四塵로부터 遞次하여 끊으면 造業·受報는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本經의 二障은 通無明通煩惱說이어서 理智를 障하여 智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는 모두가 無明이요, 心行을 障하여 解脫치 못하게 하는 쪽으로는 모두가 煩惱라고 圭峰의 圓覺大疏에서 말하고 있으니 이는 起信의 二礙가 相違障을 準한 論法과 다르다. 아울러 起信의 二碍가 本經의 理障이 되고 六染中 一分相生義만으로 事障을 形成한다는 論理가 自明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輪廻의 根本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輪廻하는 種性を 알아 自己의 位置에서 障惑을 끊으므로써 輪廻를 免할 수 있다는 것이 本經의 要旨인 것이다.

八. 結言

以上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二障의 體와 義를 論함에 있어 相宗의 立場과 空宗 性宗의 差異가 있고 또 生起의 立場과 斷滅의 立場에서 보는 差異가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相宗의 二障을 顯了門, 性宗, 空宗의 二障을 隱密門으로 配對했음도 알 수 있다.

어느쪽이 되었건 惑障이 德을 障礙한다는 점에서는 共通된다 하겠으나 默庵의 諸經會要是 그것을 다시 다음의 네 가지 形態로 나누었다.

一은 通障이니 一惑이 多德을 障하는 것이요 二는 別障이니 一惑이 一德을 障하는 것이요, 三은 順障이니 細惑이 細德을 障하고 麤惑이 麤德을 障하는 것이요 四는 違障이니 細惑이 麤德을 障하고 麤惑이 細德을 障하는 것이다.

이중 通障과 別障을 묶어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누니 一은 能別所總障이요 二는 能總所別障이요 三은 能所俱總障이요 四는 能所俱別障이라고 하였다.

36) 幻解刪補記 重請開示科 韓國佛教全書 六~四二〇下參照.

37) 圓覺經略疏(講本版本) 五卷二十三丈上參照.

順障과 違障을 묶어 다시 네 문으로 나누었으니 一은 能違所順이요 二는 能順所違요 三은 能所俱違요 四는 能所俱順이라 하였다.

이런 科揀에 準하여 叙上의 六本經論을 살피건대 唯識의 二障은 煩惱障이 障涅槃해야 令有情으로 流轉生死하고 所知障이 障菩提해야 令有情으로 不得大覺이라 하니 別障과 順障의 類요, 二障義에서 顯了門은 唯識의 境遇와 같고 隱密門은 別障과 相違障의 類요, 楞嚴의 二障은, 煩惱障은 續諸生死하고 所知障은 碍正知見이라 하니 通·別·違·順이 具足하고, 起信의 二障은 煩惱碍는 障眞如義故요, 智碍는 障世間自然業智故라 하니, 亦是 通·別·違·順의 四障의 義가 具足하고 般若의 二障은 煩惱障이 障心해야 心不解脫하고 所知障이 障慧해야 慧不解脫이라 하니 相違障과 能所俱別의 障이요, 圓覺의 二障은 理障은 碍正知見하고 事障의 續諸生死라 하니, 別障과 順障의 類라고 보았다.

그러나 以上の 諸說은 各其 增勝한 편으로 말한 것일뿐 實際에는 모두가 서로 相即相入하는 것이다. 但 우리들 初心者로서는 감당키 어려우므로 不得已 諸宗行相의 大義에 根據하여 判別하는 尺度로 삼는 것이 緊要할 것 같아 未洽하나마 이렇게 整理해 본다.